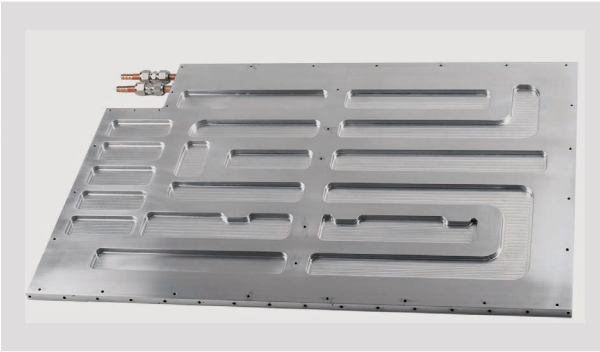


품명	축전기 부분품		
HS code	8507.90		
관세율(%)	MFN	FTA	추가 관세※
	7	0	25%
	※ '25년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용 에 대해 25%의 추가관세 부과(Proclamation 10908)		



▶ 해당 품목의 對미 수출은 '23년과 '24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'25년 1분기에는 최근 5년의 연평균 수출액에 버금가는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469.5%의 수출증가율을 보임

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(HS 8507.90)

(단위 : 천 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20	45,437	176.3
2021	77,864	71.4
2022	150,860	93.7
2023	144,755	-4.0
2024	143,688	-0.7
2024.3	20,409	
2025.3	116,241	469.5

선정 사유

- ▶ 축전기(accumulator)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장치로 연축전기, 니켈카드뮴전기, 리튬이온전기 등이 포함됨
- ▶ 주요 부분품(HS 8507.90)으로는 배터리 분리막, 용기, 납판, 납격자 등이 대표적이며,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됨
- ▶ 미국은 축전기 부분품(HS 8507.90)을 납 축전기(lead-acid storage batteries)의 부품(HS 8507.90.40.00)과 기타(HS 8507.90.80.00)로 구분하고 있으며, 두 품목 모두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
- ▶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용으로 사용되는 축전기 부분품에 대하여 25%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있어, 향후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 판단되기에 동 품목을 1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미
수출동향

(HS 8507.90)

- ▶ 축전지 부분품(HS 8507.90)은 격리판(HSK 8507.90-1000)과 기타(HSK 8507.90-9000)로 구분되고 對미 수출금액의 약 99.9%는 격리판이 아닌 기타 부분품으로부터 발생, 기타 부분품의 수출액은 전년도 수출액의 약 80% 이상을 차지한 반면, 격리판의 수출액은 전년도 수출액 대비 약 3% 수준으로 미미함

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(HS code 8507.9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 불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3년	2024년	2025년 1분기
		총계	144,755	143,688	116,241
1	8507.90	부분품	144,755	143,688	116,241
	8507.90-1000	격리판	44	132	4
	8507.90-9000	기타	144,711	143,556	116,23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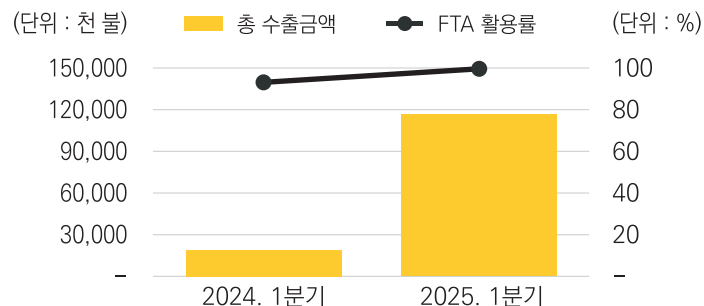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8507.9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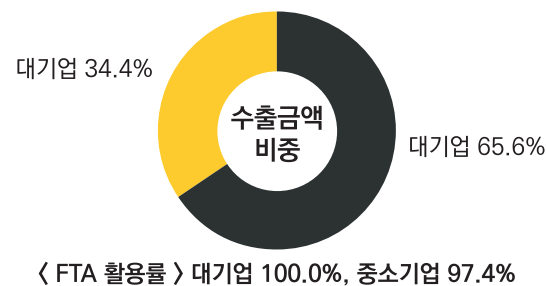
- ▶ HS 8507.90(축전지 부분품) 對미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은 증가함
- FTA 활용률 '24년 1분기 92.7%, '25년 1분기 99.1%로 나타남
 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TH임

- ▶ '25년 1분기 기준, HS 8507.9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65.6%, 중소기업 34.4%임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100.0%, 중소기업 97.4%임

[HS 8507.90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4~2025)]



[HS 8507.9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5년 1분기)]



미국 수입 동향

- ▶ '25년 3월 기준 미국의 HS 8507.90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, 한국, 일본, 멕시코, 베트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2위에 위치함
-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(30.4%), 한국(25.6%), 일본(17.9%), 멕시코(11.5%), 베트남(6.4%)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밖에 프랑스(1.7%), 캐나다(1.3%), 독일(1.0%), 필리핀(0.8%), 아랍에미리트 연합(0.7%)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축전지 부분품은 축전지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구성요소로 주로 고기능화와 고안정성 기술이 집약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(ESS)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필수 부품으로 산업 전반의 기술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품목임
- ▶ 축전지 부분품은 한국과 중국,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집약도를 요구하기에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
-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주요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회사에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
- ▶ 미국은 '24년 기준 약 40억 달러 규모의 축전지 부분품의 수입하며 전세계 수입의 약 33%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축전지 부분품 수입국임
-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축전지 부분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며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주요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- ▶ 미국은 이전 행정부부터 중국산 축전지 부분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이 대체 공급처로 부상함
-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,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%의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축전지 부분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
- ▶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관련 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며, 수출시장 다변화 및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가 요구됨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미 FTA 특혜관세율은 0%이며 MFN은 3.5%로 한-미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- '25년 5월 3일 이후로는 25%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율은 변동없이 유지되어 FTA 활용 혜택은 지속됨
- ▶ 축전지 부분품은 전기차, ESS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핵심 품목으로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품질 경쟁력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
- ▶ 더욱이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리스크 분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특히 FTA 활용 시 미국의 원산지 검증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산지 소명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원산지 관리가 요구됨
- ▶ 축전지 부분품은 한-미 FTA 관세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인 동시에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병존하는 품목으로 평가됨
-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며, 정부 역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하여 지속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